우수활동가
입선

Before

의류디자이너

부안군으로 귀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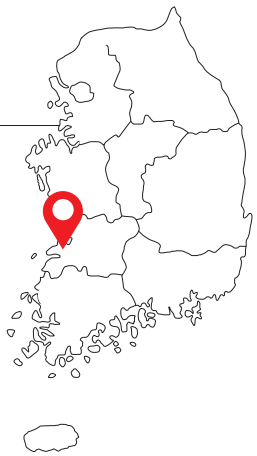
우덕새마을회 사무장('21년~)
부안군 문화재단 지역문화기획자('23년~)

전북 부안군 우덕마을
박후진 사무장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우덕마을의 박후진 활동가는
3년 전 귀촌하여 마을의 젊은 일꾼을 자처하였습니다.
박후진 활동가는 마을 한가운데에 흉흉하게 방치되어 있는 옛 경로당을 보고,
주민들에게 정체성과 일체감을 주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재단장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문학과 기록을 좋아했던 활동가의 설득과 주도로 주민들이 직접
마을 역사가 담긴 여러자료들을 모았으며 이러한 아카이빙은
멈춰있던 공간을 재생할 뿐 아니라 주민의 삶에도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박후진 사무장의 활동지

위치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가오리 우덕길 19 우덕마을
주요자원	우덕기록문화관, 힐링프로그램, 문화·복지 지원사업, 농촌교육 등



▲ 우덕기록문화관(외부)

> 다양한 색깔,
> 서로 다른 이야기를
> 영원히 기억할 주인공

▲ 우덕기록문화관(내부)

▲ 마을주민의 기록 작업 모습

주민들의 정체성 확보 및 공동체성 함양

유휴시설인 옛 경로당을 활용한 우덕기록문화관은 마을의 추억을 공유하고 다양한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마을 명소입니다. 우덕기록문화관을 만들기 위해 박후진 활동가의 주도로 주민들이 간직하고 있던 마을의 역사를 발굴하고 취합하였습니다. 지역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들은 근현대 역사가 담긴 민간기록물이었으며 기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현재는 우덕마을의 정체성을 이어가고 공동체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색 있는 농촌마을의 선두주자

지역의 변화를 만드는 건 작은 움직임의 힘이라고 믿는 우덕마을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어울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은퇴자들을 위하여 생애 전환마을을 구축하며 선후민과 후주민이 상생하는 돌봄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마을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명인사와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

▲ 마을 활성화 관련 방송 출연

우덕마을은 박후진 활동가의 주도로 주민과 마을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을환경개선과 농촌교육, 문화·복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하고 있으며 공동체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역량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주민 간의 소통을 활발하게 만들고, 마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간의 재생이 삶의 재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마을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민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공동체 활동의 토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남아있던 오래된 물건과 사진 등의 기록을 보존 및 전시하는 한편 현재의 우덕마을에 대한 것도 성실히 기록하고자 노력합니다.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의 생생마을 플러스 사업으로 마을과 주민 사진촬영을 진행하였고, 이어 힐링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작가를 초빙하여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함께하는 마을풍경 그리기 축제를 열었습니다. 또한 온라인 소통 창구로 밴드를 개설하여 주민은 물론 출향민들과 마을의 이모저모를 나누고 있습니다. 밴드는 기록관의 다양한 활동이 공유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덕마을은 돌봄과 치유의 공간을 계속 확보하여 마을 어르신들이 요양원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일하며 살아온 주민들과 계속 부대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기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마을이었던 우덕마을은 주민들의 노력과 신뢰 속에 놀라움과 재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마을 활성화 사례 교육